

# 이슬람의 생활 양식

사이드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 저

<http://www.quran.or.kr>

Email: [quran@quran.or.kr](mailto:quran@quran.or.kr)

# 이슬람의 생활 양식

사이드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 저

1990년 11월 3,000부 재판

International Islamic Federation of Student Organizations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 분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도다.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나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지 않는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 차 례

초간 발간사/ 재판 발간사/ 머리말

### 1장 이슬람의 삶의 개념

- 1) 기본 명제들
- 2) 신앙(이만): 본질과 특성
- 3) 생활 체계

목적과 특성

미덕(마루화)

악덕(문까라)

이슬람 이념의 몇 가지 특징들

### 2장 이슬람의 도덕체계

차이점

이슬람의 삶과 도덕 개념

도덕적 노력의 목적

도덕이 갖는 내적 제재

동기와 자극

이슬람 도덕 질서가 갖는 두드러진 특성들

### 3장 이슬람 정치 조직의 본질적 특징

이슬람의 민주주의

이슬람 국가의 목적

기본권

집행부와 입법부

#### 4장 이슬람의 사회 질서

만민 평등

가족 관계

친척과 이웃

#### 5장 이슬람의 경제 원칙

재산권

평등의 문제

사회 정의

의무와 규제

#### 6장 이슬람의 영적 체제

육체와 영혼의 갈등

도덕 발전의 표준

영성에 이르는 길

### 초판 발간사

지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작은 책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슬람의 지하드”를 발행한 것을 계기로 I.I.F.S.O 씨리즈 발행을 계속하게 되어 “이슬람 실상”에 이어 “이슬람의 생활 양식”을 발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알함두릴라.

벽돌 한장 한장을 쌓아 대성원을 건축하듯 이렇게 수준 높은 이슬람 책자를 한권 한권 발행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이슬람 지식이 축적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꽃을 피우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I.I.F.S.O. 씨리즈와 그 외의 이슬람 책자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지고하신 하나님께 감히 도움을 청합니다.

이 책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글 번역을 하여 주신 자매님과 교정, 교열을 맡아주신 빌랄 이병선 형제님, 출판에 관여하여 주신 한국 컴퓨터 인쇄(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1987, 6, 29(1407, 10, 1)  
이둘 피뜨르 아침에  
압둘라쉬드 염보섭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재판 발간사

알라 수부하나후와 따알라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이슬람 선교증진을 위하여 사이애드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의 “이슬람의 생활 양식”을 재출판 할 수 있도록 알라께서 기회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책이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가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널리 배포되고 읽혀진다면 우리의 노력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 책은 International Islamic Federation of Student Organizations(I.I.F.S.O)과 Korea Muslim Federation(K.M.F)의 공동작업으로 재출판되었습니다.

알라수부하나후와 따알라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이 책의 재출판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준 니자뭇딘 몰라(Nisamuddin Molla) 형제와 재정적인 협조와 가능한 충고를 아끼 않으신 아흐만 토론지 박사(Dr. Ahmad Totonji, Riyadh, Saudi Arabia) 그리고 셰이크 압둘라 야히야 알 지프리(Shaikh Abdullah Y. Al-Jifri, Jeddah, Saudi Arabia)와 이 작업을 도와 주신 그 밖의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라여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옵고 이슬람을 위한 저희의 노력을 받아 주소서

한국 이슬람 중앙회  
서울  
1990년 11월(서기)  
1411년 5월(히즈라후)

압둘살람  
선교위원회위원장  
한국 이슬람중앙회

하지 야신 배삼진  
이사장  
한국 이슬람중앙회

## 머 리 말

1948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마울라나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는 이슬람의 생활 양식의 특이점에 관해 다섯 개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다. Islamic Research Academy는 이 방송을 영역하여 증정본형으로 만들어 기증하고 있다. 새로운 초보적인 장이 이슬람의 삶의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보완되어 독자로 하여금 도덕,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하여 개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다른 출판물들에서 편집되었다. “이슬람의 생활 양식”은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이슬람지식 개요에 대한 첫 번째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추구하는데 흥미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철저히 다룬 저자나 편집자가 각주에 제시하는 다른 저서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편집자는 번역 교정을 도와준 친구 M.Z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새 출판물에서 교정과 번역할 원본을 보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표현과 편집상의 실수를 지적해 준 친구들과 많은 충고에 감사한다. 이 책이 불러 일으킨 반응은 우리를 대단히 고무시켰다. 가장 뛰어난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입문서로써 받아들여졌다. 이 책이 계속 이슬람에 보탬이 되고 진리를 찾는 자에게 바른 길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카라치에서  
1967. 9. 19  
쿠르시드 아흐만



# 1장

## 이슬람의 삶의 개념<sup>1</sup>

이슬람 교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갈등, 부정 및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하는 주요 차이점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슬람의 교리 자체를 단순히 인간의 정신과 도덕 생활을 정화시키는 것만으로 한정짓지 않는다. 개인 생활 역시 사회 질서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패턴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지상 위에 이루어지고 평화와 만족, 인류 복지가 대양을 채우는 물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생활 양식은 이와 같이 삶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과 우주에서 차지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특별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의 도덕, 사회, 정치 및 경제 체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슬람의 삶의 인식을 명확히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이해하고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기본 명제들이 있다. 기본 명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 명제들

1.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그 분의 광대한 왕국(우주)의 한 부분에 지구라는 임시 정거장을 부여하셨다. 그 분은 인간에게 사고 능력과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주셨다. 또한 인간은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자연환경을 자기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요약하면 인간은 이 땅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받은 동시에 자치권을 얻은 것이다.

2.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의 대리 통치권을 주시기에 앞서 그 분만이 우주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임을 확실히 밝히셨다. 그러므로 전 우주와 인간을 비롯한 우주안의 모든 천지 만물은 유일한 신이신 그 분에게 복종해야 한다. 인간은 자기가 완전한 자유인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이 땅이 자기의 영원

---

<sup>1</sup> 이 장은 마울라나 마우두디의 저서의 발췌문으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편주)

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시험 기간 동안만 이 땅위에 머물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히 그는 창조주에게 돌아가 그가 시험 기간에 보여준 행위에 의거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인간이 수행해야 할 유일한 의무는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상 생활에서 그 분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심판 받아야 하고 그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힘쓰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규범은 인간을 타락시킨다.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길을 걷는다면 (인간에게 선택하고 따를 자유가 있듯이) 그는 이 세상은 물론 저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평화가 깃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며 저 세상에서는 영원불멸의 은총이 있는 천국의 삶을 위하여 자아단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생활을 한다면 (이 또한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부패와 파멸과 실패된 삶을 살고 내세에서 지옥이라 일컫는 비참과 고통의 거처에서 살게 되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3. 이와 같은 징벌 조항을 규정하신 하나님은 이 땅위에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sup>2</sup>과 이브에게 이 땅위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그 분의 계율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땅위에서의 인류의 시작은 전혀 어둡지만은 않았다. 최초의 인간에게 타오르는 횃불과 영광스런 운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율이 주어진 것이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지식을 받았다. 인간은 현실을 의식하며 주어진 생활 규범을 지키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슬람의 생활 규범은 인간 및 전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적 태도이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종교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서 점차 강도에서 벗어나 엉뚱한 그릇된 길로 들어섰다. 게으름 때문에 그들은 정통교를 잃어버렸거나 어리석음 또는 악의로 말미암아 정통 교리를 수정하거나 왜곡 시켰다. 그들은 수많은 인간과 비 인간 대상물 및 추상적인 실체들을 신격화하여 우상화시켰으며 가장 사악한 종교 형태인 다신교(shirk)에 탐닉했다. 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상스런 신화와 이념과 철학과 완전히 뒤섞어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제례의 밀림을 조장시켰다. 그들

---

<sup>2</sup> 이슬람에 따르면 아담은 이 땅에 나타난 알라의 최초의 예언자이다. (편주)

은 하나님이 부여한 사회 윤리와 집단도덕(샤리아)의 원칙을 저버리고 인간 생활에서 평화와 평정을 빼앗았다.

4. 인간이 샤리아를 무시하고 왜곡시켜 진리의 길을 떠나 버리고 심지어 그들 중 몇 명은 신성한 하나님의 계율에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강제로 정도로 이끌지 않으신다. 진리의 길일지라도 강제 인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율성에 위배된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진실한 사람을 택하시어 그에게 인간이 이 땅위에 사는 동안 마음을 돌이켜 진리의 길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지워 주신다. 선택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진실에 대한 자가 의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영예롭게 하신다. 예언자(그 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로 일컬어지는 이 분들은 진리의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띠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도록 초청한다.

5. 이 같은 예언자들은 새 시대가 시작된 때 모든 나라 모든 국가에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갖고 같은 생활 양식을 제창했으며 이 생활 양식은 인류가 출현한 첫날부터 인간에게 계시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모두 같은 계율을 준수한다. 그 계율은 인간이 처음 이 땅에서의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같은 사명을 띤다. 즉, 모든 인간을 이슬람에 초청하여 성스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들인 사람들을 그 계율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그들과 더불어 신성법의 구현 운동을 함으로써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이단들을 종식시킨다. 모든 예언자는 최선을 다하여 사명 수행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전혀)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람들 중 몇 명은 점차 시간이 경과하자 가르침을 잊어버리거나 왜곡시켰다.

6. 마침내 하나님은 예언자 무함만(그 분에게 평화가 있기를)을 아라비아에서 선택하여 초기 예언자들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완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무함만(그 분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띤 메시지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슬람의 가르침(교리)을 초기의 형태로 수정하여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렸던 성계율을 인류에게 보급시켰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의 움마(이슬람 공동체)로 결성하여 그들 스스로 이슬람의 가르침에 준하여 삶을 재구성하여 인류로 하여금 정의의 길에 초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절대패권을 이 땅위에 구현하는 임무를 지웠다. 이 같은 계율은 성 꾸란에 수록되어 전 인류<sup>3</sup>를 위해 명시된 행동 규범으로서 유일한 정당성을 갖는다.

## 2) 신앙(이만) : 본질과 특성

우리는 앞에서 이슬람의 기본 명제들을 살펴보면서 그 기본 명제들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규정하는 계율의 전달 방식과 동시에 자연 및 자연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와 지위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이제부터 꾸란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짓는 기본원칙과 그 관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삶의 개념을 살펴보자.

꾸란은 이 문제를 여러가지 경우에서 다루었으나 꾸란이 주장하는 전체적인 삶의 개념은 다음 귀절에 요약되어 있다.

하나님은 믿는자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재산을 사시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 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 전하고 투쟁하며 또 순교하리니 그것은 구약과 신약과 꾸란에 약속된 것이라 하나님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뇨 너희 가 하나님과 성약한 것에 기뻐라 그것이 영광된 승리라.(꾸란 9:111)<sup>4</sup>

위에 언급한 귀절에서 신앙(이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종교 행위) 때문에 구체화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 계약적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있어서 신앙이 단순히 형이상학적 개념만이나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생명과 소유물을 하나님과 물물교환하여 내세의 영원 불멸을 약속하는 천국을 획득한다는 계약적 성격을 갖는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믿는자의 생명과 재산을 사들이는 값으로 죽은 뒤에 영원한 천국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적 개념은 중요한 하층적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계약이 갖는 본질적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실질적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부가 세상의 것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

<sup>3</sup> 꾸란 해설서 1권 pp. 16-19

<sup>4</sup> 꾸란 9장 111절

것이기도 한 것은 그것들을 만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에게 그것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한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면 어떤 형태의 매매행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 않는다. 실질적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실질적 주인이 아니므로 (그에게는) 그것들을 팔 수 있는데 대의 명분이 없다. 그러나 인간에게 양도되어 있는 한 가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완전히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길(진리의 길)을 가거나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사물의 진실성을 인식할 수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선택의 자유의지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자연자원의 실질적 소유주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며 인간이 자기 임의로 그것들을 유용할 대의 명분을 부여하지도 않으며 진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 또는 인식 거부 어느 것도 사실상 진실에 끼치는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는 선택의 자유의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과 소유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인식할 수도 있으나 그와 반대로 인식을 거부하여 자신에게 완전한 독립된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 원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며 어떠한 계율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 의사에 따라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계약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이란 인간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이 사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매매계약의 진정한 뜻은 이것이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에게 속했으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양도받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물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신탁물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수행할 자유의지를 갖는 동시에 원치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인간은 기꺼이 성실하게 (강요나 강제가 아닌), 자연자원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인간은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물로서 유용해야 한다.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 분의 절대성을 겸손히 받아 들이는 사람은 “자율권”을 하나님에게 “팔아버리고”(자율권: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대신 하나님이 약속하는 영원한 은총의 낙원인 천국을 소유한다. 이와 같은 매매 계약자를 무슬림(믿는자)라 하고 신앙(이만)은 계약 행위를 가리키는 이슬람의 용어

(이만)은 계약 행위를 가리키는 이슬람의 용어(명칭)이다. 반면 이 같은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계약 이후 계약 불이행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는 까피르라 하고 계약 회피 또는 계약 파기를 꾀하는 행위를 꾸프르로 간주한다.

계약 성격은 위와 같다. 계약의 약정 조항들을 살펴보자.

1.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경우로 시험하신다.

- a.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인간이 진정한 자기 지위를 깨닫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정직성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창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지 아니면 이성을 잃고 자신의 창조주에게 반기를 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숭고한 영혼의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모든 고결한 가치 체계를 짓밟고 천사들을 울리는 악의의 속임수를 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sup>5</sup>
- b.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것, 내세에서 실현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부를 기꺼이 내놓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기 위하여 시험하시며 인간이 자신의 자율권과 자율권의 부수물로서의 온갖 것들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값으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지 알고자 인간을 시험하신다.

2. 이슬람 법률의 공인된 원칙으로서 신앙은 몇 가지 교리에 입각하여 구성되며 이 같은 교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나 무민(진실한 사람)이 된다. 누구도 믿지 않는 자를 비난하거나 그를 움마 영역에서 추방할 권리는 없으나 죄를 저지르거나 믿음을 포기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문제 의식의 논리적 측면이다. 그러나 절대자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선택적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내맡길 때 구성되는 신앙이 유일하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자신의 절대 권력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간이 자신

---

<sup>5</sup> 편자는 인간의 이같은 태도를 멋지게 묘사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다음 귀절을 빌어왔다.

“인간, 오만 불손한 인간 별볼일 없는 하찮은 권위를 몸에 두르고 자신이 가장 확신하는 바를 가장 무시하며 인간의 본질이란 약오른 원숭이처럼 고작 하늘을 상대로 터무니 없는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로 하여금 눈물짓게 만든다. <방법을 위한 방법> (이사벨라) 2장 2막 셰익스피어

을 송두리째 내맡길 수 있는 사고 및 행동 양식이다. 하나님에게 자기를 온전히 내맡기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무엇이다. 그것은 인간의 심적 태도로서 어떤 행동 단계를 위한 준비이다. 누가 깔리마<sup>6</sup>를 암송하고 계약 체결을 보이면서 마음으로는 아직도 자신을 물리적인 권리 및 정신적인 권리와 도덕적이고 물질적인 재산의 소유자 내지는 통치자로 의식하고 그것들을 자기 의사대로 써버리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무민이라고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믿지 않는자로서 사실을 그가 꾸란이 말하는 바, 신앙의 진수라고 일컫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까닭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자기가 갖는 권력과 재원을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는 방향으로 써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그의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에게 헌납치 아니하고 또는 헌납했을 지라도 그릇된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헌납을 더럽히는 것이다.

3. 신앙의 이 같은 속성은 이슬람 생활 양식을 비이슬람 생활 양식과 구별짓는다. 하나님에 대해 독실한 믿음을 갖는 이슬람 신자(무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내맡긴다. 그의 삶 전부는 복종과 양도의 삶이며 결코 잊지만 않는다면 그는 거만하고 제멋대로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라도 그는 곧 깨닫고 그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진정한 무슬림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사회는 결코 그들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치적 질서, 사회조직, 문화, 경제 정책을 비롯한 법률체제와 국제적 대응책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계율과 조화를 이루어 어떠한 유형으로든 그 계율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실수 혹은 태만에서 비롯되는 어떤 계율 위반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바로 잡아 하나님의 법의 복종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계율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자유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무슬림이라는 명칭을 사칭할지라도 사악한 길을 걷는 것으로 불신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4.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의무이며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계시한 계율이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직접 분명히 밝혔듯이

---

<sup>6</sup> 깔리마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말을 낭독함으로써 이슬람에 귀의한다. 깔리마란 “알라(하나님)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만은 그 분의 예언자이시다”란 말이다.

하나님의 뜻에는 애매모호성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가 하나님과의 계약 수행에 정직하고 성실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생활 양식을 하나님의 경전과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순나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간단히 살펴본 결과 우리는 이와 같은 측면과 규정들이 계약 내용에 논리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위의 논의로 비추어 “대가”지불이 왜 죽음 뒤의 세계로 미루어졌는지 명백히 알려졌다. 천국은 계약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그것은 성실한 계약 수행에 대한 보상이다. 체결된 계약이 수행되지 않고 매도인의 실질적 생활 태도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보상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듯 “판매”최종 조항은 매도인의 삶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인용 귀절을 살펴볼 때 그 인용 귀절이 원래의 문맥과 비교해서 사실인 경우 제기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다. 인용 귀절을 선행하는 귀절에는 신앙을 고백하고 복종의 삶을 서약한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 이르러서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예를 들고 있다. 몇 명은 부름의 시간을 무시하여 대의 명분을 그르쳤다. 또는 위선적인 속임수로 하나님의 대의 명분하에 그들의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거부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릇됨을 폭로하고 그들의 불성실을 비난하면서 신앙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담보형식의 계약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이런 계약 행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지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그의 생명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슬림이 이에 어긋나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불성실한 것이다. 독실한 신앙인이란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명과 모든 소유물을 완전히 팔아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행동 반경에서 하나님의 계율을 준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계율에 복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는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이다.<sup>7</sup>

## 2) 생활 체계

논의결과 이슬람은 출발부터 적정선을 설정하여 그 적정선

---

<sup>7</sup>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의 꾸란 해설서2권 pp. 235-239



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짐을 알았다. 신도들의 개인 및 사회 생활은 모두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조화시키는 훈련에 불과하다. 이슬람의 출발적인 신앙은 인간이 지성과 의지로써 이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슬람은 생활과 태도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실질적인 순종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슬람이 영위하는 생활체계를 잠시 살펴본다. 이런 생활체계-행동규범-을 샤리아<sup>8</sup>라고 한다. 이는 꾸란과 예언자(그분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수난를 전거로 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전과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는 오늘날 진리의 저장소이며 그들은 온 인류를 진리에 초청하여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덕 분야에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인간은 이 자유의지에 따라 수용의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행위이다. 예언자와 경전이 말하고 있는 진리 개념이 옳다고 동의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를 굽힐 줄 아는 한, 말에 앞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슬람이라 일컫는 바가 이와 같은 순종이며 실제 생활에서의 신앙(이만)의 열매로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즉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자기의 지배자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율대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일컫는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

---

<sup>8</sup> 이러한 행동 규범을 따르는 것은 인류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이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혹은 인간이 지건해야 할 지대한 일에서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인간 행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진실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경전과 예언서에서 밝히고 있는 생활 철학을 받아 들였을 경우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계율을 불복종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중요한 이유이므로 인간이 따라야 할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다. 첫째 인간의 자유의지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권력 형태와 조직 기관은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째 선택 의지 그 자체는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은총이다. 셋째 인간의 자유의지는 재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작용한다. 넷째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독립성을 구가하는 토지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 인간 생활을 우주 원리와 조화시키는 것은 인간 행위의 두 가지 영역-자발적 영역과 비자발적 영역 또는 다른 말로 정신영역과 물질영역-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하나의 지배원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두 영역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 일으켜 마침내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전 인류를 영원한 고통과 재앙 속으로 몰아 넣을 위험성이 있다.

마우두디[이슬람법과 헌법] 라호르, 1960, p.49

나의 군집 사회를 이루어 무슬림 사회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것은 이상적인 사회로서 민족이나 색깔 또는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군집 사회이다. 이 사회는 자유선택과 노력의 결과이며 인간과 인간의 창조주 사이에 발생한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람들은 그들의 통치자 최고의 지배자로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며 그 분의 명령을 절대적인 법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분류해 놓은 선과 악, 옳고 그름,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의문이나 의심 없이 수용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슬람 사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범위 내에 행동 반경을 한정시킨다. 말을 바꾸면 무슬림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법의 근간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두고 있다.

그런 성격의 사회가 형성되었을 때 경전과 예언자는 그 사회에 해당하는 샤리아라는 삶의 규범을 제정하고 이 사회는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그 규범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사회가 규범을 지킬 경우 그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깨뜨릴 경우에는 사회 전체가 “비이슬람”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구별해야 할 것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 또는 계약 위반과 샤리아에 대한 고의적인 반기이다. 전자는 완전히 계약파기를 뜻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분명한 계약 파기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이슬람 사회가 고의적으로 샤리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샤리아의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사회 법률을 빌어 오거나 혹은 나름대로의 헌법과 법령을 주장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슬람”이라 불리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목적과 특성

계속해서 샤리아가 주장하는 생활체계를 살펴보자.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필수적으로 샤리아의 목적과 기본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샤리아의 주요 목적은 미덕(마루화)을 바탕으로 한 삶을 구현하고 삶의 악덕(문까라)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마루화라는 용어는 인간적 양심이 늘 “선”이라고 여겨왔던 여러가지 인간적 미덕과 장점들을 의미한다. 반대로 문까라는 인간성이 갖고 있는 “악”이라고 규정지어진 여러가지 죄 및 악행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마루화는 인간성 및 인간성의 일반적인 특질과 조화를 이루나 문  
까라는 전혀 그 반대이다.

샤리아는 이와 같은 마루화와 문까라적 견해를 분명히 밝  
히면서 이는 개인 및 사회적 태도가 따라야 할 규범이라고 말하  
고 있다.

그러나 샤리아는 우리에게 단지 덕과 악을 가정짓는 기능  
만을 띠지 않는다. 샤리아는 생활체계 전부를 명시하여 덕이 융성  
하여 악이 인간 생활을 오염시키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샤리아는 그 체계에 선의  
성장을 고무하는 모든 요소를 받아들였고 선의 성장과 발전을 저  
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단계적 방법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련의 보조적인 마루화가 대의 명분 및 선을 키우고 간직하는  
방법과 아울러 선을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금지 명령으로 이루  
어졌음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문까라에는 악을 조장시키는 보조  
적 목록이 있다.

샤리아는 이슬람 사회를 선과 덕, 진리와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고무하여 모든 측면에서 선의 영  
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동시에 샤리아는 덕  
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한다. 따라서 샤리아는 악을 금  
지하고 악이 생성하여 성장하는 요인을 제거하며 악이 사회로 침  
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며 악이 사회로 침투할 수 있는 여지  
를 폐쇄시킬 뿐 아니라 발생여부를 점검할 제지책을 강구함으로  
써 사회체계로부터 악을 근절하고자 한다.

### 미덕(마루화)

샤리아는 마루화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즉 의무사항  
(화르드와 와집), 권장사항(마트룹)과 허용사항(무바)이다.

의무사항(마루화)의 준수는 무슬림 사회에 주어진 의무이며  
샤리아는 의무사항에 대한 필수 몇 가지 규칙 항목들을 밝히고  
있다. 권장사항(마루화)은 무슬림 사회가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샤리아의 희망 항목들이다. 대부분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의 교훈에서 암시되고 유추된 것이다. 몇몇 조항은 명백히 밝  
혀져 있다. 이 밖에도 몇몇 조항이 샤리아에 명시되어 생활체계에  
서 성장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약정들도 있다.  
다른 것들은 아직도 샤리아가 사회자체 혹은 사회의 어느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부여된 단순한 권장 사항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으로 허용사항 마루화가 있다. 엄격히 말해서 샤리아에 의하면 샤리아가 금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은 허용사항인 마루화(즉, 무자)이다. 명시된 허용사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명백히 주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허용사항 마루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해서 샤리아가 특별히 금기조항으로 규정지은 것이외의 모든 것은 무슬림에게 허용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신중한 의사에 따라 우리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요구조건을 샤리아의 일반적 정신에 입각하여 갖출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 악덕(문까라)

문까라(또는 이슬람에서 금기하고 있는 것들)는 다시 두 범주로 나누인다. 금지(하람) 즉,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과 마꾸르, 즉 단순히 꺼려하는 것들로써 이 두가지이다. 하람이 명시하는 모든 금지조항을 삼가는 것은 무슬림에게 부과된 과중한 의무이다. 마꾸르에 의하면 샤리아는 암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여하한 방법으로든 지시하는 것을 꺼려하며 이를 중요시한다. 예를 들면, 하람과 비슷한 몇몇 마꾸르가 있는가 하면 허용조항과 유사한 것도 있다. 물론 그들의 수효는 금지조항과 허용조항의 두가지 극단적 조항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 게다가 몇몇 경우에는 마꾸르의 금지를 위해 샤리아가 외연적인 규정을 짓는가 하면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정들이 개인 도는 사회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 이슬람 이념의 몇 가지 특징들

이렇듯 샤리아는 집단 생활 뿐 아니라 개인 생활을 지배하기 위한 규칙 조항을 규정짓는다. 이와 같은 규칙 조항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들, 이를테면 종교의식, 개인 성격, 도덕규범, 습관,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 및 경제 경영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법률조직,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내지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 간단히 말해 샤리아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총괄한다. 이와 같은 규칙 조항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

가 되고 득이 되는 것과 해와 악을 구별하고 우리가 무엇을 억제하고 무엇을 보호해야 할 지를 일러주며 우리의 자발적 내지 개인적 사회적 영역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갖는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단과 방법 및 삼가해야 할 것들을 상세히 일러준다. 샤리아는 완전무결한 생활체계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회질서로서 과잉되는 것도 부족되는 것도 없다.

샤리아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유기적인 전체성을 들 수 있다. 이슬람이 제의하는 생활체계 전체는 하나의 정신으로 일괄하여 따라서 체계를 독단적으로 분리할 경우 이슬람적인 질서의 구조뿐만 아니라 체계정신마저도 해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체계를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인간 신체에 비교할 수 있다. 신체에서 떼어낸 다리 하나로는 8분의 1 또는 6분의 1짜리 인간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간 신체로부터 분리된 그 다리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된 다리는 어떤 다른 동물의 일부가 되어 인간의 다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바랄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의 손, 눈, 코 등을 살아있는 신체에서 원래의 위치에서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분리시켜 그 유용성이나 효율성 내지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샤리아가 제시하는 생활체계에 관해서도 역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이슬람은 삶의 체계 전체를 중요시 할뿐 분리된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샤리아가 각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전체를 살피지 않고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취하여 다른 어떤 “ism”과 꺾어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샤리아는 생활 체계 전부가 샤리아에 의지한 실천적 삶이 될 경우에만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sup>9</sup>

## 2장

---

<sup>9</sup> ‘이슬라법과 협법’의 발췌, pp 46-54

참조: 마우두디, 이슬람 및 이슬람 신앙의 기초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 이슬람의 도덕체계<sup>10</sup>

인간에게 있어 도덕관념은 타고난 것이며 나이가 들면서 인간이 갖는 도덕적 태도의 일반적 기준이 정립되어 사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는 척도가 된다. 이와 같은 본능적인 자질은 사람마다 다를지도 모르나 인간적인 양심<sup>11</sup>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사한 평결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악이라고 받아들인 것을 선이라고 받아들이는 특정한 도덕 규범을 신뢰할 수 없다. 도덕적 가치에 관한 측면에서 보면 언제나 정의, 용기, 진실성이 찬미받아 왔으며 역사가 부조리와 부정, 거짓, 배신이 횡행했던 시대에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 정다운 동료 의식, 신의와 포용성과는 달리 늘 이기주의, 잔인성, 편협성과 구두쇠적 기질은 인간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늘 인내와 결단 그리고 용기를 예찬하고 조급함이나 우유부단성 또는 비겁함과 어리석음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엄, 자제, 예의범절, 또는 상냥한 기질이 역사를 통하여 주요 덕목으로 손꼽히고 반면 속물근성이나 실수, 건방짐, 무례함등은 푸대접을 받아 훌륭한 도덕적 재질을 부여받지 못했다.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들, 의무에 헌신적인 사람들은 늘 가장 높은 위치를 획득했고 능력없고 게으르고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은 도외시되었다.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사회의 전체적인 집단 행동에서 보면 평결은 항상 만장 일치로 나타난다. 오직 명예와 존경을 받아온 사회는 인간의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기저로 사회질서로 정립하고 상호 애정과 따뜻한 동료 의식과 사회규율 및 운영체제를 갖춘 사회였다. 이와는 반대로 무질서, 혼란, 무정부, 비통일성, 부정 그리고 사회 부조화는 늘 해체되고 부패한 사회의 상징처럼 여겨왔다. 절도, 살인, 간음, 폭행, 사기, 부정축재등은 비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상모략, 험담 그리고 공갈, 갈취는 전혀 건강한 사회활동으로 간주되어 본 예가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노효친 사상이나 친지와 친척간의 상부상조, 이웃간의 화목, 친구에 대한 우정, 약자나 없

---

<sup>10</sup> 이 장은 1948년 1월6일 라호르의 파키스탄 라디오 방송으로 한 저자의 방송을 새로이 정리하여 번역한 것이다.(편주)

<sup>11</sup> 이 어휘는 넓은 의미로 쓰이며 인간의 도덕의식을 의미한다. 이것을 제한된 의미에서 작가들이 소위 도덕률의 진화라는 인류학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편주)

는 자 및 고아를 도와주고 병든자를 구호하는 행위등은 모두 한결같이 문명이 시작된 이래 높이 예찬받았던 것들이다. 덕망있고 예의바르며 온유하고 시실한 사람들은 늘 환영받았다. 고결하고 정직하며 솔직하고 신뢰성있고 언행이 일치하며 자기의 정당한 소유물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지고 있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고 스스로 평화롭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평화롭게 살도록 하며 오직 선만이 요구될 수 있는 개인들이 모두 건강한 인간 사회의 핵심을 구성했다.

이는 곧 곧 인간의 도덕 기준은 사실은 보편적인 것으로 시대<sup>12</sup>를 통하여 인류에게 잘 알려져 왔음을 보여준다. 선과 악은 숨겨진 신화가 아니다. 그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모두가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의 의식은 인간 속성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꾸란은 결론에 이르러 덕을 “마루흐(잘 알려진 것)”이라 일컬었고 악을 “문까르(알려지지 않은 것)”라고 명시한다. 이는 곧 덕이란 모든 사람들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간주함을 악이란 어떤 식으로도 해서는 안될 일임을 뜻한다. 꾸란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셨나니(꾸란 91:8)

### 차이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선과 악에 대한 기본 가치가 그렇게 잘 알려졌고 또 그 가치에 대한 보편적인 정당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세상에는 왜 다양한 도덕적 태도와 형태가 존재하는가? 왜 서로 대립되는 도덕 철학이 그렇게 많은가? 그들이 갖는 차이점의 뿌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윤리체제를 지배하는 각종 교리에서 차지하는 이슬람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어떤 근거로 우리는 이슬람이 완전 무결한 도덕 체제를 갖는다고 주장하는가? 그리고 정확히 윤리영역에서 이슬람이 공헌한 두드러진

---

<sup>12</sup> 어떤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는 이러한 관점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관습과 도덕의 표면적인 차이저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간존재의 문명화 단계에서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요소 등이 있다는 의견에 더욱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저자의 의견은 이 기간에 의거한다. 차이점의 특징 및 원인은 다음 절에서 논의된다. (편주)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모두 중요하며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sup>13</sup>을 대충 살핀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우리가 현 윤리체제와 도덕적 태도의 대립 유형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할 때 직면한 주요 문제들 중 몇개를 간단히 요약할까 한다.

1. 현 윤리체제는 여러가지 다양한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서 각기 특수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위치를 배당하여 통합하지 못한다. 이는 사회 행동의 균형있고 일관성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그들 차이점의 진짜 원인은 도덕 체계가 선과 악에 대한 각기 다른 행동기준을 제시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이점은 도덕법 이면의 내적 제재적 측면에도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하는 동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3. 깊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차이점의 원인은 우주와 우주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위치와 이 땅위에서의 인간의 목적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개념과 의견을 갖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윤리이론, 철학이론, 종교이론 이 모두는 단지 가장 본질적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인간드러 다양한 의견을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과연 우주에는 신아니 통치자가 존재하며 존재한다면 유일한 하나님 아니면 다수의 신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쓰리고 아픈 인생살이를 통해 인류를 이끌어 줄 약정을 만드셨는지? 인간은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하는가? 인간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며 인간은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을 간직해야 하는가? 이 무수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삶의 양식을 결정할 것이며 개인 및 사회가 지켜야 할 도덕적 태도 유형과 윤리철학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 짧은 논의에서 널리 보급된 여러가지 다양한 윤리체제에 대한 자료를 다루어서 각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 문제해답이 언급한 이론을 믿는 사회의 도덕 혁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인다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는 이슬람

---

<sup>13</sup> 저자의 상세한 예시 참조: 이슬람의 윤리적 관점, 이슬람 출판사 간, 라호르 1965. (편주)



적 개념만을 다루어 제시하고자 한다.<sup>14</sup>

### 이슬람의 삶과 도덕개념

그러나 이슬람적 관점에서의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분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다. 우주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율에 의해 운행된다. 그 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 그 분은 수부흐, 꾸드시하시다.(즉, 완전무결하시어 결함도, 실수도, 악함도, 잘못도 없이 모든 면에서 순결하시다.) 그 분의 신성은 편견이 없으며 부정이 없다. 인간은 그 분의 창조물이며 종이고 하인이며 태어나 그 분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

인간의 올바른 삶은 그 분에 대한 완벽한 순종에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형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창조주인 하나님은 때때로 인류를 계도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들어 쓰셨으며 그들을 통해 경전을 계시하셨다. 인간은 생활 행동지침을 이 경전에서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인간은 세상에서의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한다. 그 때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죽은 뒤에 세상에서 있을 일이다. 이 세상에서 지내는 짧은 시간은 대시판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이 생에서 인간은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저생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 마지막 심판에서 각 사람은 자기의 모든 믿음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은 그의 모든 능력과 자질을 심판받는다. 인간의 행위는 그의 일거수일투족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끼친 영향-먼지 따위의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높은 산맥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완전무결한 기록뿐만 아니라 그의 내부의 생각, 느낌, 의도에 대한 기록까지도 보관하고 계신 창시자 하나님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것이다.

### 도덕적 노력의 목적

이것은 이슬람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다. 우주와 우주속의 인간적 위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인류의 궁극적인 진자선을 결정하며 인류는 이 선을 목적으로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

---

<sup>14</sup> 인류의 도덕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려면 “이슬람의 윤리적 관점” 참조(편주)

의 은총을 갈구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선을 풀이할 수 있다. 궁극적인 선은 특정한 행동규범을 선과 악으로 판정 및 분류하는 척도기준이다. 이러한 척도기준은 모든 도덕 행위가 중심으로 돌고 있는 핵심을 제공한다. 인간은 계류장치를 잃어버리고 방치되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가 아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류에게 중심 목적 대상을 주시고 모든 도덕 행위에 대한 가치와 규범들을 주신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에서도 불변적이며 가치체계를 제공하신다. 게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바를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에게 고결하고 숭고한 목적이 부여되면서 인간은 인간의 도덕 혁명 즉 어떠한 경우에서도 편협한 이기주의나 완고한 종족 또는 국가 우상에 대해서도 오염되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슬람은 또한 선행과 악행을 결정하는 방법들도 제시했다. 그것은 악과 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단순히 지성, 욕망, 직관, 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조되며 수정되어 일정하고 제한적이며 불변하는 도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다. 계시는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경전과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순나(생활양식)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들은 도덕 행위 규범을 규정짓고 있어 이 규범은 영구적이며 보편적이어서 모든 시대 모든 환경에 적용되어 선을 구현한다. 이슬람의 도덕규범은 사소한 가정생활에서부터 국가 및 국제적 도덕행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우리생활에서의 도덕적 원칙들을 폭넓게 적용시켜 우리가 다른 어떤 지식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며 지식의존도 기본적인 근거에 대한 참고사항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도덕이 갖는 내적 제재

우주와 우주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위치에 대한 개념은 내적 제재를 제공하는데 이 내적 제재는 모든 도덕률,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책임감과 영원한 은총의 약속 그리고 내세에서의 보상 등의 도덕률에 내재해야 한다. 이슬람이 강력하고 커다란 여론을 형성하여 개인 및 집단으로 하여금 설정한 도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또한 정치체제의 혁명을 꾀하여 가능하면 입법권 및 수법권으로 도덕률을 지배하려 하므

로 이슬람 도덕률은 사실상 종교 아닌 외부적 세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유전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선에 대한 강력한 욕망에 달려 있어 하나님과 심판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슬람은 어떠한 도덕적 의무조항을 나열하기에 앞서 인간의 마음에 자기를 지켜보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에 있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심어 주고자 한다. 즉 인간은 세상으로부터는 자신을 숨길수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숨길 수 없고 인간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며 인간은 사람의 구속으로부터는 도망칠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안 된다. 이는 세상은 인간의 외부적 세계만을 볼 뿐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생각과 모든 요강을 감찰하기 때문으로 인간은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마련한 정의의 법정에서 출두해야 한다. 이 정의의 법정에는 사적인 옹호나 지지, 변호, 왜곡보도, 속임수, 사기 등이 있을 수 없으며 이 곳에서 인간의 미래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정된다. 경찰이나 법정이나 감옥 등의 기구가 세상에서 존재하며 인간의 부도덕 행위를 심판할 지 모르나 앞에서 언급한 인간 마음 속에 깊이 뿌리박힌 확실한 믿음만이 이슬람의 도덕률이 갖고 있는 실질적 힘으로서 도덕률의 제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대중의 여론과 국가의 강제력은 이슬람의 도덕률을 지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만으로도 이슬람을 신봉하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손쉽게 곧장 덕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동기와 자극

인간과 우주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이슬람의 개념은 또한 각 개인이 도덕률을 준행하도록 고무시키는 동기 요소도 제공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자신의 창조자로 받아들인다는 사실과 인간은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애쓰며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는 하나님의 계율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자극으로써 충분하다. 따라서 심판의날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율에 순종하는 삶은 누구나 반드시 죽음 뒤의 세계에서 좋은 삶을 누리며 인간이 갖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인생이란 덧없는 기간에 직시해야 한다는 믿음은 덕을 쌓는

삶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자극이 된다. 그 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율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형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신념은 그 사람이 비록 피상적으로는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도덕률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유효한 자극이다. 이와 같은 희망과 두려움이 인간 마음에 뿌리깊이 자리잡는다면 동기를 강력하게 활성화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덕행을 유도하므로 모든 경우에서 세속적인 결과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해를 입는다해도 그는 악에서 벗어나서 악의 멸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슬람이 선과 악에 대한 두드러진 판단 기준 내지 자족적인 도덕률, 자족적인 제재력과 자족적인 동기 활성화력을 가지고 잘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도덕 가치를 모든 생활 영역에 끌어들이어 균형있고 포괄적인 생활체계가 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이슬람은 자율적이며 완벽한 도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체계는 여러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어 그 중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언급하건데 이 세가지는 윤리학에 대한 이슬람의 공헌 내용을 말해 줄 것이다.

### 이슬람 도덕질서가 갖는 두드러진 특성들

1. 신의 은총을 인간 삶의 최고 목적이라 보는 것으로써 이미 충분한 도덕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는 인류의 도덕혁명에 대한 무한한 통로를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지식의 절대적 근본으로 간주함으로써 고정불변의 영원한 도덕 기준을 부여해서 왜곡이라든가 난폭한 변동, 원자적 상대주의 또는 도덕적 유동성이 아닌 적절한 조정, 수정, 개혁에 대한 타당한 영역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어떤 외부적 압력을 쓰지 않고도 도덕률에 복종시킬 하나님에 대한 숭배와 경외심에 있어서 내적 제재도 제시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시판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은 인간이 진지함과 성실함과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도덕적 행위를 유도하는 동기를 제시한다.

2. 정통과 개혁에 대한 그릇된 의식으로는 어떠한 새로운 도덕가치도 제공하지 못하며, 잘 알려진 도덕규범이 중요성을 최소화하려 하지 않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어느 것을 과장하여 중요시하고 어느 것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든 도덕 가치를 취해서 균형있고 평형적으로 생활체계 전체에 있어서 각 도덕가치의 기능고와 위치를 적절하게 부여한다. 이것

은 인간의 개인생활과 집단생활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도덕체계의 폭넓은 적용영역을 조성한다. 즉, 인간의 가정생활, 시민생활, 그리고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및 사회 각 영역에서의 인간 활동을 전부 포괄한다. 이를테면 가정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식탁에서 전쟁터와 평화회담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의미한다. 간단히 생활의 어느 영역도 이슬람의 도덕원칙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없다. 도덕을 최고의 지배원리로 삼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므로 이기적 욕망과 사소한 사리사욕에 사로잡히지 않은채 도덕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3. 그것은 인간에게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모든 선에 의해 영위되는 삶을 요구한다. 인간들로 하여금 덕을 실천하며 악을 구현하며 악을 근절하고 선을 구너장하며 악을 징계토록한다. 따라서 양심적 평결이 승리하고 덕이 악에 의해 지배당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사회(우마)를 구성하면 그들은 “무슬림”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리고 이 공동사회를 형성하는 지배원리 아래 유일한(하나의) 목적은 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직적 노력을 기울려 악을<sup>15</sup>제약하여 근절시키는 일이다. 만약 이와 같은 공동사회의 노력이 오히려 선을 종식시키고 악을 구현하는 일에 쏟아진다면 그 날은 지역 공동사회의 죽음을 알리는 날이며 전 인류에 대하여 최악의 날이다.

## 3장

### 이슬람 정치조직의 본질적 특징<sup>16</sup>

이슬람 정치조직은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다. 즉 하나님의

---

<sup>15</sup> 꾸란은 다음 귀절에서 상대적 내용을 말하고 있다.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라 계율을 지키고 악을 배 제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라”(꾸란 3장 110절) “이들이란 하나님이 지상에 거주케한 그들로 그들은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내며 선을 행 하며 악을 멀리하니 만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노라.”( 꾸란 22장 41절)-편주

<sup>16</sup> 이 장은 저자의 1948년 1월 29일 라호르의 파키스탄 라디오 방송내용을 영역한 것이다. 원문은 약간 수정되었다.(편주)

유일성(따우히드), 예언자직(리싸라트) 그리고 칼리프직(킬라파)이다. 이슬람의 정치형태가 갖는 상이한 측면들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상의 세 가지 원칙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본론을 시작한다.<sup>17</sup>

따우히드(유일성)는 창조자는 유일신으로서 우주와 우주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이 왕국에 대한 지배권은 오직 유일신인 그 분에게 귀속되어 있다. 그 분만이 명령하거나 금지시킬 권리를 갖는다. 예배와 순종은 그 분만의 것이며 다른 무엇도 예배나 순종을 어느 형태 및 정도로도 공유하지 못한다. 고유의 여러가지 형태의 생명체, 인간의 신체조직이나 신체기능, 우주 안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을 통솔할 수 있는 인간의 지배력등 어느 것도 인간 스스로의 권리에 의해 창조되거나 얻어진 것은 없다. 그것들은 모두 다름아닌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풍성한 선물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나 의의를 결정하지 못하며 인간의 세속적인 권위의 한계점을 규정짓지 못하며 또한 그 밖의 어느 것도 인간을 위하여 결정지를 권리를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일성이 갖는 원칙은 모두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인간의 법률적이고 정치적 지배 권력에 대한 개념을 부정한다. 어느 누구도 개인이나 갖고이나 계급이나 집단이나 민족조차도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지배자이시며 그 분의 계율은 곧 이슬람의 법률이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의 계율을 받는 매개체가 바로 예언자이다. 인간은 예언자로부터 두 가지를 받았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예언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전해석과 경전예시, 인간이 모범으로 삼가해야 할 광범위한 행동원칙들은 경전에 명시되어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예언자는 경전이 의도하는 바대로 인간에게 이슬람에서의 표본적인 생활양식을 설정하며 실질적으로 법을 준수케 하며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이 두 가지 요소의 조합 행위를 이슬람의 술어 용어법에 의하면 샤리아라고 일컫는다.

이제부터 킬리파를 살펴보자. 이 용어는 글자 그대로는 “대리인”이다. 인간의 진정한 위치와 지위는 이슬람에 따르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권리가 부여한 대리 통치권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

<sup>17</sup>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마우두디의 “이슬람법과 헌법”라호르, 1960, 4장

한계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의 실천 의무를 갖는다.

예를 들어 (다른)어떤 사람이 당신의 토지를 빌어 당신 대신에 경작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이 경우 당신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하게 지켜지는 지를 살필 것이다. 첫째 실질적 토지 소유권이 경작자가 아닌 당신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둘째 경작자가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지시에 따라 운영할는지, 셋째 경작자가 당신이 그에게 주장하는 규정사항 내에서 자기 권리 수행을 할는지, 넷째 계약 수행에 있어서 경작자는 자기 욕구가 아닌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지 이상 네 가지 조건들을 “대리”라는 어휘가 갖는 매우 고유한 개념으로서 “대리”라는 어휘와 늘 수반되는 것들이다. 어느 대리인이라도 이상 네 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그는 자기의 대리권이 갖는 한계성을 위반하고 “대리인”이란 개념이 향유하고 있는 계약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슬람이 인간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칼리파)라고 주장하는 바가 진정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의 내용은 칼리파의 개녀과 관련을 갖는다. 이같은 정치 기초에 기초하여 건국된 나라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간 칼리프의 영지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제한된 한계내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일하며 그의 지시사항 및 금지사항을 준행해야 한다.

### 이슬람의 민주주의

위에서 다룬 칼리파란 어휘에 대한 설명은 개인이나, 왕조, 계급 어느 것도 칼리파가 될 수 없으며 다만 칼리파의 권위는 인간 집단 전체의 부여된 것으로서 따우히드와 리싸라트의 원칙에 동의함은 물론 대리조건을 수행하기에 힘써야 한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회단체는 칼리프의 영지에 대한 책임수행을 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은 칼리프의 영지를 공유한다.

이점에서부터 이슬람의 민주주의가 출발한다. 이슬람 사회 각 구성원은 하나님이 보조하는 칼리프의 권리와 자격을 누리며 이런 의미에서 모든 개인은 동등하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선권을 갖거나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권리와 자격을 박탈하지 못한다. 그 나라의 일을 운영하는 대리권은 그 나라의 각 개인의 의사와 더불어 수행되어 국가의 권위는 위임받은 개인적 권력의 부수물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형태를 구성하

고 정부는 개인의 욕구와 조언에 따라 운영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들을 대신하여 칼리프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가 백성의 신뢰를 잃을 경우 그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이슬람의 정치 체계는 하나의 완벽한 민주주의적 형태로서 전례에 없는 예이다. 물론 후자는 대중적인 통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전자는 대중적인 킬라파 원칙에 입각한다. 서구 비종교적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한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통치는 하나님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백성은 하나님의 칼리프들 또는 대리인들이다. 전자는 국민이 직접 지배법률을 제정하고 후자는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한 법령(또는 계율: 샤리아)을 지키고 복종해야 한다. 하나는 정부가 국민의 의지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 국민이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할 의무를 가진다. 요약하면 서구 민주주의는 일종의 절대적 권위를 갖고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유한 권력을 수행하는 반면 이슬람의 민주주의는 신성법의 하위에 있어서 소유한 권력을 하나님의 금기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규정한 한계에서 수행해야 한다.

### 이슬람 국가의 목적

이제부터 국가형태에 대하여 간략한 요약 하겠다. 모든 국가 형태는 따우히드(유일성)과 리싸라트(무함만의 예언자직)와 킬라파(칼리프:대리인)를 근거로 출발한다.<sup>18</sup>

성 꾸란은 이 서술의 목적은 덕목들을 구현, 유지, 발전시켜 이 우주의 창조주도 바라고 있듯이 인간의 삶을 의미있게 하고 하나님이 증오하며 인간의 삶에서 금지하여 종식시키고자 하는 악의 실재를 근절하려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 갖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슬람 국가의 건국은 정치 운영이나 정치 운영을 통하여 특정한 부류의 민족적 집단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이슬람은 국가가 띠는 최고의 대의명분으로서 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수단 방법의 성취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순결, 아름다움, 선, 성공, 번영이 가지는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누리기를 바

<sup>18</sup> 이와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검토하려면, “이슬람법과 헌법” 4장 4,5조항, 5장 3,5,6조항, 6장 4조항을 참조할 것(편주)



라는 것들이며 발전, 진화해야 하고 온갖 부정, 무질서, 착취활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대하여 파괴적이며 그의 창조물들에 대하여 유해하므로 종식시켜 저지해야 한다. 이슬람은 인간에게 최고의 대의명분을 부여하는 동시에 바라직한 덕목과 그렇지 않은 죄목을 명확히 열거하면서 도덕체제의 개략적 요약 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요약을 고려하여 이슬람 국가는 초시대적으로 초환경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슬람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는 도덕원칙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삶의 전반부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형태의 기본은 정의, 진실, 정직에 있다는 고정 불변의 정책이론을 띠고 있다. 어느 때나 무엇이든 이를테면 사기, 범죄, 불의가 정치적, 경영학적,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마구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국가 내에서의 상호관계 이든 혹은 나라와 나라이든 우선권은 물질적인 보상보다 진리, 정직, 그리고 정의에 주어져야 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유사한 의무조항이 부과되어 모든 계약조건과 책임을 완수해야 하며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균일한 방법과수단이 동원되며 불의를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 구현을 위해 권력과 권위를 사용해야 하며 권리에 따르는 의무수행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에 따르는 그들의 권리를 잊지 말 것이며 신성한 의무로서 책임을 중요시하여 성심성의껏 책임을 수행하며 소유한 권력을 하나님의 위이 위탁물로 여겨 사용하되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보여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심판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늘 지녀야 한다.

## 기본권

이슬람 국가가 지구상 어느 곳에 건국된다 할지라도 이슬람은 그 나라의 지정학적 한계에 인간권리 및 특권을 제한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인류에게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몇 가지 기본 권리<sup>19</sup>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존중

---

<sup>19</sup> 이러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면 마우두디의 “인간의 기본권리” 또한 “이슬

하며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 개인이 이슬람 국가 영역 내 또한 영역 밖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니면 그 개인이 이슬람 국가와 평화관계 또한 전쟁관계에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 인간 생명은 고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박탈당하지 않는다. 여자와 어린이, 노인과 환자 및 병자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여자의 순결과 명예는 모든 경우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배고픈 사람은 먹여야 하며 혈벗은 사람은 입혀야 하고 상처입은 자와 병든자는 치료받아야 하되 이는 그들이 이슬람 공동사회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또 그들이 원수들 중의 하나일지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 및 다른 몇 가지를 이슬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선천적 고유지위에서 비롯되는 존엄성에 의해 이슬람 국가 헌법의 보호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슬람의 시민 권리 조차도 그 국가 영역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한정하지 않고 그의 출생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무슬림에게 주어진다. 사실상 무슬림이 이슬람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가 그 곳에서 머물러 살겠다는 의도로 이슬람 국가에 발을 들려 놓은 순간부터이며 따라서 그는 그 곳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모든 이슬람 국가 사이에 일반적이어야 하고 무슬림은 어느 이슬람 국가를 통과할 때 여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든 무슬림은 민족과 피부색과 계급의 구별과 함께 모든 최고 책임을 수행할 적절한 능력을 지녀야 한다.<sup>20</sup>

이슬람은 이슬람 국가 경계선내에 거주하는 비무슬림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권리 조항은 반드시 이슬람 헌법<sup>21</sup>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슬람의 술어 용어법에 의하면 비무슬림들을 계약자(딤니)라 일컫는데 이는 이슬람 국가가 그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따라서 그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딤니(비무슬림 시민)의 생명, 재산, 명예는 진짜 무슬림 시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민법이나 형법적인 문제에

람법과 헌법” 4장 7조항 및 7장 9,10조항을 참조할 것.(편주)

<sup>20</sup> 여기에 언급된 몇몇 사항은 이슬람 국가가 최종적 형태를 갖추었을 때 구체화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실천항목에 관한 한 가능한 한 윗 사람들과 부합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슬람 국가는 단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편주)

<sup>21</sup> 자세한 내용은 “이슬람법과 헌법” 8장 참조(편주)

서 무슬림과 비무슬림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이슬람 구가는 비무슬림의 개인법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들은 양심과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가지며 그들의 종교 의식 및 종교 행사를 임의대로 가질 자유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이슬람을 논박할 권리도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권리는 제한없이 부여되었으나 그 나라의 시민법은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모든 비난 공격 공격은 그 나라의 전 시민에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가지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딴니에게 부여되어 왔다. 이와 같은 권리는 모두 최종적인 특징을 갖는다. 비무슬림들은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계약을 철회하지 않는한 추방되지 않는다. 비무슬림 국가가 그 나라에 거주하는 무슬림 시민을 포악하게 탄압하고 박해할 지라도 이슬람 국가는 본국에 거주하는 비무슬림 시민을 극히 사소한 형태로라도 보복할 수 없으며 이슬람 국가 경제 구역 밖에 거주하는 모든 이슬람 국민들이 대량 학살 당할지라도 이슬람 본국은 본국에 거주하는 비무슬림 누가라도 부당하게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

### 집행부와 입법부

이슬람 국가에는 정부 운영 책임을 지도자(아미르:우두머리)가 맡고 있으며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수상이나 대통령직과 비슷하다. 헌법의 기본원칙들을 믿는 모든 성인 남자와 여자는 지도자 선거권리<sup>22</sup>를 갖는다. 지도자의 피선거권을 구성하는 기본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피선거권은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슬람의 정신적인 면에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피선거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슬람적 속성을 지녀야 하고 천부적인 정치가적 자질을 타고나야 한다. 간단히 말해 피선거인은 덕과 능력을 겨비해야 한다. 자문위원(쑤라)은 또한 국민에 의해 피선되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도자를 보필한다. 아미르가 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의 의무이다. 아미르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동안만 지도자의 위치를 소유할 수 있으며 그가 국민의 지지를 잃은 경우는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sup>22</sup> “이슬람법과 헌법”참조 6장 4,5,6조항

그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한은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부운영을 한다. 시민 모두는 아미르를 탄핵할 권리를 가지며 여론을 수렴할 타당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슬람 국가에 있어서의 법률 제정은 샤리아 법이 규정짓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금지조항은 받아들여 순종해야 하며 그것은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개편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률도 이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두가지 또는 그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계율에 있어서 계율이 지니는 샤리아의 진정한 의미를 가려내는 작업은 샤리아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된다. 따라서 그러한 작업은 이슬람 법률을 습득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분과 자문위원회에 위임되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분야가 샤리아의 특별한 제한 규정을 받지 않고 심의되어 법률로 제정되므로 자문위원회 또는 입법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는 자유로운 법률 제정이 가능하다.

이슬람은 국가의 사법권을 집행권의 관할 하에 두지 않는다. 사법권의 권한은 샤리아에서 직접 비롯되며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관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임명하지만 일단 재판관이 임무를 맡으면 하나님의 계율에 따라 공정하게 구경을 다스려 정의구현을 하며 정부기관 및 정부관리, 정부 사법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정부의 최고 당국도 국가의 일반 시민과 다름없이 원고 또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출두 명령에 응해야 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모두 같은 법령 적용을 받으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신분, 권력 및 특권에 의한 특별 우대란 있을 수 없다. 이슬람은 만민 평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원칙은 사회, 경제, 정치 분야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

## 4장

### 이슬람의 사회 질서<sup>23</sup>

---

<sup>23</sup> 이장은 1948년 2월 10일 라호르의 파키스탄 라디오 방송 내용이다. 이 주제에

이슬람 사회체제의 기본 원칙은 모든 만민의 평등 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형제애를 구성한다.

## 만민평등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최초의 인간 두 사람을 만들었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오늘날 이 땅위에 살게 되었다. 처음 기간 얼마동안 그들의 후손은 하나의 종족을 이루었다. 그들은 하나의 종교를 갖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 사이에 차이점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차츰 증가하여 세계 곳곳에 퍼져 살면서 다양하게 뿔어나가 자연히 여러 종족과 나라로 분열되었다.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의 의상풍습이 변화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 구별되었다. 그들이 사는 각기 다른 지리적 환경과 기후 때문에 피부색과 신체적인 모습이 달라졌다. 이러한 모든 차이점도 자연스런 변화이다.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점은 나름대로의 진실성도 갖는다. 따라서 이슬람 역시 이와 같은 차이점을 사실로 인정한다. 이슬람은 그것들을 제거, 또는 무시하려 하지 않고 다만 그들 상호간에 구별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있음을 단언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편견, 즉 민족이나 피부색, 언어, 국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각종 집단이나 조직들 사이에 편견 갈등을 이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그 사람의 출생 때문에 계급 때문에 본토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순전히 무식한 태도로 간주한다. 이슬람은 세계 인류는 같은 조상에서 태어난 같은 인간으로서 모두 동등한 형제자매라고 주장한다.

이 평등 개념과 인류의 형제애를 설명하고 나서 이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인종, 피부색, 국가와 언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믿음이나 원리 원칙의 차이는 없다고 덧붙인다. 같은 어머니를 가진 두 어린이는 그들이 비록 동인한 혈통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만약 그들의 믿음

---

보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 서적을 참조할 것. Purdah(우르두어 판)라호르. Huggugaz-Zaujain(우르두어 판)라호르 “이슬람 가족법에 관한 연구” 쿠르시드 아흐마드 편저. 카라치 1961년(편주)

과 도덕 규범이 서로 다르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동쪽 다른 사람은 서쪽에 있어 지리적으로 외부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같은 생각과 같은 도덕 행위를 갖는다면 그들은 같은 인생길을 걸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주의에 의해 이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사회, 국가사회 등의 편협사회와는 다른 주의의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 이러한 이상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결집된 공동노력은 구성원의 출생이 아니라 도덕 원리와 신념이다.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며 지배자이심을 믿는다면 따라서 예언자의 가르치심을 자시의 생활지침으로 수용한다면 그의 거주지가 아메리카이건 아프리카이건 상관없이 그는 위의 공동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가 셈족이건 아리아족이건 아니면 백인이건 흑인이건 또는 유럽어를 사용하건 아랍어를 사용하건 이것 역시 관계 없다. 위의 공동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 국가차별, 계급차별도 받지 않는다. 사람을 지위고하에 의해 차별하지 않는다. 그들은 혼인관계 및 의식주와 사회계약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의 출생이나 작업 때문에 멸시 내지 괘시 당하지 않는다. 누구도 자기가 속한 사회계급, 지역사회, 가계혈통에 의한 특별우대를 주장할 수 없다. 그 사람의 가치평가는 그의 가계혈통이나 재산이 아니라 오직 그가 도덕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가 또는 정당성과 경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가에 달려 있다. 인종과 피부색이나 언어의 제한에서 벗어나고 지리적 경계에서 벗어난 사회질서는 세계 곳곳에 그 세력을 넓힐 수 있으며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인류를 지도하는 보편적인 형제애의 구성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민족이나 국가에 기초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에 소속되어야 하며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달아버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상사회에 이런 신조를 받아들이고 그 도덕규범을 수용한다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상사회가 주장하는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공동사회가 그 영역내에서 포용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형제애를 갖고서 기꺼이 그들에게 인간의 모든 기본권리를 양도한다. 분명 같은 어머니를 가진 두 어린이가 서로 다른 사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의 생활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두 사

람의 형제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인간 집단이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두 개의 인간 집단이 그들의 기본 신념과 기본 원칙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면 그들의 사회질서 또한 서로 다르며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인류 공동체 의식은 공유할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 사회는 비이슬람 사회 및 집단에게 최대의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인류 공동체 의식에 기준한다.

이상의 이슬람 사회질서를 이루는 기본원리를 파악하고 나서 이슬람에 의해 조장되어 왔던 사회관계의 원칙들과 유형들을 간략히 살펴보자.

### 가족관계

가족 단위는 인류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집단이다. 하나의 가족의 구성은 한 사람의 여자와 한 사람의 남자가 서로 만나고 그들의 만남은 하나의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킨다. 그러므로 가족은 친척 관계를 이루고 점차 하나의 커다란 사회로 발전한다. 가족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인간 문명을 전수하고 사회임무를 헌신적이고 성실하며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루어지는 구성체이다. 가족 구성체는 인류문명의 유지 발전을 위한 훈련생을 양성하는게 아니라 인류문화의 후견인을 양성한다. 이들은 장래에 자기들을 대신할 다음 세대는 그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가족은 진보와 발전 번영 및 인류문명의 계승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은 사회문제 중에서도 가족에 관련되 사회문제에 특히 헌신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아주 건강하고 견고한 기초위에 이러한 가족 단위를 형성시키고자 애를 쓴다. 이슬람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와의 올바른 관계는 결혼이며 이 결혼을 통하여 그들은 사회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고 하나의 가족을 구성한다. 성개방과 무책임한 행동을 이슬람은 건전한 유희나 평범한 규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는 인류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혼인 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죄로 간주하여 금지하며 형사처벌을 적용한다.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을 명시하여 그러한 반사회적인 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거나 발생소지를 조성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화하고 경계하는 기능을 갖는다. 부녀자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규정, 남녀 혼숙의 금지, 외설스러운 음악과 그림에 대한 엄격한 규제, 그리고 음란 및 변태 행위의 확산과 전파를 막으려는 노력은 모두 사회적 해독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가족 구성체를 보호하고 육성시키는데 있다. 이슬람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접촉에 있어서 무턱대고 사회에서 허용되는 바람직한 접촉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와 같은 구체적으로 덕을 닦는 행위를 주관하여 사회에 베푼다. 이슬람은 마음에도 없이 종교적 의무로서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모든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이 되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결혼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자기들의 부모들이 그랬듯이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슬람은 (지나친) 금욕주의와 영원한 독신생활을 전혀 미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타고난 고유의 인간본성에서 벗어난 삼라만상의 신성한 체계에 반발하는 불성실한 행위라고 본다. (게다가) 또한 결혼 관습을 어렵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의식이나 관습, 규제 조항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러한 이슬람의 취지는 결혼제도를 장려하고 오늘날 다른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미혼 남녀간의 간음 행위를 사회에서 방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혈연관계에 있는 몇몇 정해진 사람들 사이의 결혼관계를 금지시키는 반면 그 밖의 다른 모든 가깝고 먼 친척 친지 사이의 혼인관계는 합법화하였다. 그리고 카스트제도와 공동체적 차별대우를 폐지했으며 하나의 무슬림 사회의 무슬림과 다른 무슬림 사이의 혼인을 인정했다. 마흐르의 액수는 신랑측의 능력 범위 내에서 쉽게 부담할 수 있도록 낮게 책정되어야 하고 지불 의무는 신랑의 책임이며 결혼식을 집전하는 이맘의 동의나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 의식은 지극히 용이하고 단순해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으며 두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할 뿐이다. 이는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임을 알리는 사회적 절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족 내에서 이슬람은 남편에게 권위적인 자격을 부여하여 한 집단의 가장으로 가정 질서와 규율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의 건강을 돌보고 위로하며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슬람은 가족 구성원의 올바른 행위 및 태도를 지도할 인물이 없어 아무런 권위나 통제와 규율이 없는 연결점이 없이 허술한 가족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 규율은 중시적인 권위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이슬람의 과점



에 의하면 한 가족에서 아버지의 위치란 가정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서 독재자나 압제자가 되고 아내는 무기력한 집안 가재도구의 하나처러 되어 남편에게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슬람에 의하면 결혼 생활을 지배하는 진짜 정신은 사랑이며 이해이고 상호 인격 존중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면 남편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그의 권리를 행사하여 사랑과 애정 그리고 정성으로 아내를 대해야 한다. 이슬람은 결혼 관계의 결속력을 돈독히 하여 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 결혼관계가 사랑어린 애정에 기초하거나 최소한 동료 의식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한 결속 관계는 충분히 유지될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이 사라지면 이슬람은 남편에게 이혼 권리를 주고 아내에게는 별거 권리를 주며 결혼 생활이 오히려 고통이나 말썽을 일으킬 상황에 빠지면 이슬람은 법정으로 하여금 그 결혼 무효 결정 권리를 행사케 한다.

### 친척과 이웃

가족의 범주 밖에 사회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친척친지와 혈연관계 대상자를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형제 자매 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친척 친지와 법적 제도에 의해 성립되는 혈족 관계는 이슬람에의하면 그들은 모두 상호 애정과 상부상조 및 서로 도와야 한다. 꾸란의 여러 곳에 가까운 친척 (자월 꼬르바)를 친절히 대하라는 계율이 나타난다.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전통 관습에 의하면 친척친지(쌀라 라흐미)를 극진히 대하는 행위는 가장 으뜸되는 덕목 중의 하나 강조하여 중요시해왔다. 자기 친척 친지를 냉대하거나 무성의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이슬람 계율에 의하여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친척 친지에 대한 편파적이고 지나친 태도가 이슬람의 덕목은 아니다. 친척 친지에 대한 지나친 호의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면 이는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며 무지(자힐리야)의 행위라는 비난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정부관리 또는 공인 수탁자가 공금을 써서 자기 친지를 돕는다거나 자기의 공적인 사무처리에 있어서 자기의 친척친지를 특별대우 한다면 이는 두말할 나위 없는 비이슬람적 행위로서 하나님에 대해 저지르는 구체적인 죄이다. 이슬람 계율이 규정하고 듯이 친척친지를 공정히 대우하려면 그는 정의와 공정의 범주에서 자기의 개인 재정으로 해야 한

다.

친척 친지 다음으로 이웃이 있다. 꾸란은 이웃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1) 친지이면서 이웃인 사람 2) 외국인 이웃 3) 여행도중 우연히 만나거나 잠시 함께 지내는 일정치 않은 잠정적 이웃 등이다. 그들은 모두 동정심과 애정과 예의를 갖추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웃의 권리를 지타치게 강조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물려 받은 유산도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하셨다. 또 다른 가르침에 의하면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자기의 악행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이슬람 신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예언자(평화가 그 분에게 있기를)는 말하기를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는 배불리 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이슬람에 대한 참신앙이 없다고 하셨다. 예언자가 알고 있는 한 여(자)신자는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종 단식을 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예물을 기꺼이 바치기도 하건만 이웃에 대해 아주 혹독한 악담을 하는 여자였다.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그 여자가 내세에서 받을 보상은 오직 지옥의 뜨거운 불길 뿐이라는 것이다. 예언자의 또 다른 교훈에 의하면 위에 말한 여자와는 달리 전혀 가진 것은 없지만 이웃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 종류의 여자는 내세에서 낙원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이러한 덕목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무슬림은 자녀들을 위해 과일을 사올 때마다 이웃에 조금씩 나누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과일 껍질을 문밖에 버려서 이웃으로 하여 일종의 상실감<sup>24</sup>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고

---

<sup>24</sup> 띠틈브라니가 전하는 하디쓰에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를)의 동료 중의 한 분이 묻기를 “오 알라의 예언자시여, 나의 이웃이란 점에서 이웃이 갖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너에게서 빛을 얻으려 하거든 빌려 주라; 그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거든 그를 도와주라; 그가 아프거든 병문안을 하여라; 그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너는 그것을 채워주라; 그에게 기쁜 소식이 있거든 함께 기뻐하라; 그에게 어떤 재앙이 생기면 너는 마땅히 그를 위로하라; 그가 죽거든 너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라; 네가 너희 집 울타리를 높이되 그가 비록 허락 할지라도 너의 이웃집 지붕의 환기 통로를 가로막을 정도로 높여서는 아니된다; 이웃에게 나누지도 않으면서 맛있는 음식의 내세로 너의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 집안에 과일을 가져 왔거든 이웃과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이웃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하며 너의 자녀가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너의 이웃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가르치고 있다. 예언자(그 분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예를 들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만약 이웃으로부터 선하다는 평판을 들을 때 그는 진실로 선한 사람이고 이웃이 그를 악하다고 하면 그는 악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슬람에 의하면 모든 이웃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이웃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두 사람이 서로 벽을 쌓고 몇년을 두고도 아무런 왕래없이 지내거나 한 도시에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무런 관심도 신뢰도 없다면 이슬람적이라 할 수 없다.

이것 외에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더 광범위한 사회 집단이 있다. 이슬람이 인간 사회 생활의 일반적인 범위까지도 통제하려는 폭넓은 원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미덕과 경건한 행동은 서로 권장하고 불의와 악행은 서로 징계한다.<sup>25</sup>
2. 누구에게 호의를 가지거나 적개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이며 너희들(무슬림)이 준 것은 되받아야 하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바이므로 그대들이 숨기는 것은 숨겨져야 하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이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가르침: 하디스)-<sup>26</sup>
3. 너희들 (무슬림들)이 인류에 나타났던 가장 우수한 공동 집단에 속한다면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sup>27</sup>
4. 서로 상대방의 악을 생각지 말며 상대방의 사생활은 파고 들지도 말며 어느 두 사람을 이간 시켜도 아니된다. 너희는 서로 경계하며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불필요한 반목, 질서를 삼가라.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며 신하인 것을 잊지 말고 모두들 형제자매로서 살아가라.<sup>28</sup>
5. 폭군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을 돕지 말라<sup>29</sup>
6. 그릇된 길에 들어선 공동사회를 지지하는 것은 우물 속에 빠지려는 낙타의 꼬리를 잡아 함께 우물 속에 빠지는 것과 같다.<sup>30</sup>

---

<sup>25</sup> 꾸란

<sup>26</sup> 하디쓰

<sup>27</sup> 꾸란

<sup>28</sup> 하디쓰

<sup>29</sup> 하디쓰

<sup>30</sup> 하디쓰

7.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너희가 선택하는 것은 네 이웃에게도 추천하라.<sup>31</sup>

이들은 몇 가지 사회적 덕목으로 여겨지는 것들로 이슬람이 수용하고 구현시켜 인류 사회에 뿌리깊이 간직되기를 바라는 것들이다.

## 5장

### 이슬람의 경제 원칙<sup>32</sup>

이슬람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기본 원리원칙을 규정하고 일정한 한계점을 명시하여 모든 생활 양식과 부의 교환 및 분배가 이슬람의 정의와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슬람 자체는 시간 체제 방식과 경제 생산의 기술적인 면이나 조직 양식과 메카니즘에 대한 세부 사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한 방식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공동사회의 요구 사항이나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경제활동의 동태에 따라 전개된다. 이슬람은 경제 활동이나 메카니즘이나 양식이 어떠한건 이슬람이 규정지은 원리원칙에 있어서 영원하고 으뜸되는 위치의 점령을 목적으로 한다.

이슬람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구와 삼라만상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위한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자기의 몫을 추구하여 확보하려는 노력은 생득권이다. 모든 인간은 이 권리를 정당하게 누려야 하고 누구도 그것을 박탈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우위적인 특권을 누려서도 안된다. 이러한 이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개인이나 인종 또는 민족, 계급이 취하는 어떠한 생계 수단 및 직업에 대한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없다. 모두 경제 영역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는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은 특권 때문에 어느 특정의 생계 수단을 어느

---

<sup>31</sup> 하디쓰

<sup>32</sup> 이장은 1948년 3월 2일 저자가 파키스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방송한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슬라 경제 체제에 대한 저자의 상세한 서술을 검토하려면 다스 도서를 필독하기 바란다. “경제에 대한 꾸란의 가르침”, 무슬림의 철학 역사, M.M 샤리프, 오토 하란위츠, 윌스 바덴 편저, 1963년 1집 2권 4장 pp. 178-190 : 이슬람과 현대 이데올로기(우르두어판)라호르; 복리문제(우르두어판)라호르; 그리고 이슬람과 사회정의(우르두어판)라호르(편주)

특정한 사람이나 계급, 민족, 또는 사회 집단이 독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위에 내려주신 자연자원에서 자기 몫을 확보하려고 분투, 노력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슬람은 이러한 노력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정당한 기회가 부여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재산권

자연이 아무런 댓가없이 제공한 천연자원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로이 활동하여 모든 인간은 필요한 만큼 요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강에 흐르고 있는 물을 비롯하여 샘물과 숲속 나무들 및 야생 시골의 열매, 야생잔디와 건초, 공기, 밀림의 동물들, 지표아래 저장되어 있는 광물 및 그 밖의 다른 여러가지 천연자원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며 필요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들의 자유 사용권을 제지하는 어떠한 류의 규제조항을 설정할 수 없다. 물론 영리적 목적 때문에 이러한 자원중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나라가 요구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는 천연자원을 악용할 경우 정부가 관여하여 중재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은 하나님의 토지를 다른 사람과 국가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유용할 정당한 권리를 규제하는 장애요소는 없다.

인류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자원을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여 사용되지 않은채 무가치하게 방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소유자가 그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케 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같은 원리원칙을 토대로 하여 이슬람은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서 3년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유주 자신이 그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건물대지로도 사용하지 않는 등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3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공한지”로 취급되어 다른 사람이 유용해도 법률상으로 전혀 제재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는 권리를 행사하여 그 토지를 토지의 원래 소유주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있다.<sup>33</sup>

---

<sup>33</sup> 이맘 아부 유습(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를)은 그의 저서 “키타브 알-키라즈”에서

자연적인 천연자원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여 자기의 소유물에 물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하여 정당한 자산권을 획득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경작되지 않은 주인없는 토지 일부를 소유하여 (이 토지에는 다른 누구의 소유권도 없으며 따라서) 그가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유권에 따르는 모든 제반 권리가 발생했다고 본다. 인류가 최초로 지구에 출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모든 인간은 모든 자연물을 이용할 수있게 되면서 누구라도 어떤 것을 소유하여 어떤 방법으로 유용했을 때 그는 정당한 소유주가 된다. 말하자면 그는 특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유용할 권리를 획득한 것이다. 이는 인류의 경제활동의 근원적인 기초로서 변경될 수 없다.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획득한 소유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한 소유권이 법률상 타당한지 규명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면 주저없이 그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위임하거나 또는 법률상 유효한 재산권에 관여할 권리는 없으나 정당하고 타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슬람은 샤리아가 위임한 제반 권리를 파괴하는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복지적 주장이 어떠한지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정의와 집단의 선은 이슬람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샤리아가 부여한 권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샤리아가 개인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여러가지 규정조항을 집단의 선이나 공동사회의 선을 위해서 축소하거나 폐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서 마치 이슬람 법률체계에 걸맞지도 않는 제한 조건과 규제조항을 첨가하는 것과도 같다. 개인이 갖는 법률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지니는 의무 중의 하나로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의 균형을 유도하는 주요 기능을 띤다.

---

타우-즈의 전거에 입각하여 이 같은 하디쓰를 전하고 있다. “버려진 토지(소유주 없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언자와 그대에게 속한다. 버려진 토지는 누구라도 그것을 유용하는 사람의 것이며 또한 누구라도 3년 동안 계속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3년이 지난 기간에는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 아부 유습은 하즈라 쌀렘 이븐 압둘라 자호리에 의거하여 하즈라 우마르가 그의 칼리프직위에 있을 때 성원에서 선포했던 바를 거듭 전하고 있다. “버려진 토지는 토지를 유용하는 사라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토지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 평등권

자연 현상과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총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분의 은총을 매우 불평등하게 배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드셨음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몸매, 부드러운 목소리, 건강한 체격 그리고 지적 재능 등을 모두 불평등하게 각 사람에게 부여하였으며 물질적 생활 수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간 본성은 사람들 사이의 변화, 다양성, 불평등이 그들의 생활 양식, 생활 수단에 있어 매우 자연스런 일처럼 운명지워진 듯하다. 변화는 생활의 청취이며 인간노력을 뒷받침하는 활력소이다. 따라서 인류에게 어떠한 인위적인 경제적 동등을 강요하는 모든 사상과 체계는 그릇된 것으로 비실제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슬람이 신봉하는 평등이란 생계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 복지와 번영의 사다리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최고에 이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기회적 측면에서 보는 평등을 말한다. 이슬람이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재주에 따른 생활을 위한 노력을 제지시키는 법적, 기능적 또는 전통적 장애요소가 사회에 존재해서도 안되며 특정계급, 특정민족 그리고 특정왕조 또는 특정사회 집단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옹호하려는 목적에 동의하는 여하한 사회적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기득권을 지지하는 모든 체제 및 사상이나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모든 체제 및 사상을 이슬람은 배척하며 교리체제에 그러한 체제의 여지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다. 그러한 체제사상은 완력을 사용하고 인위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능동적인 노력을 고취시키는 동기 역할을 하는 자연스런 한정된 불평등을 제거하고 부자연스런 평등을 사회에서 조장시키려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런 사상과 체제를 일소하여 자연적인 기반 위에 경제체제를 올려 놓아 균등한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슬람은 자연스런 한정된 불평등을 인위적 평등으로 대치시키려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생산수단과 경제적 노력의 열매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을 강요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노력에 실제로 참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환경체제만이 인간본질에 가장 근접하는 유일한 체제이다. 비행기를 상속받은 사람은 비행기의 장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두개의 다리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회법률을 확립하려 해서도 안되며 맨발의 사람이

비행기를 획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서도 안 되며 경기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똑같은 출발점에서 억지로 출발하여 똑같은 상황 아래 그들 모두 그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에게 얽매어서도 안 된다. 이와 반대로 경제법은 맨발의 사람이 불리한 상황에서 경주를 시작하여 그가 할 수 만 있다면 그의 노력과 능력의 범주에서 비행기를 확보하여 소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며 비행기를 상속받은 사람은 경기에서 뒤쳐져 그가 스스로 무능하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그가 비행기를 포기할 수도 있음이 가능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노력은 보상 받아야 하고 무능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 사회정의

이슬람은 이러한 경제적 경주가 공평하지 않은 부당한 상황이나 도덕적 중립, 그리고 사회 무관심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경주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서로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 이슬람은 자체 내의 도덕적 금기 명령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 애정과 신뢰, 믿음을 조성시켜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들이 서구의 취약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단 방법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과 보조를 보장하는 영원한 사회 단체를 구성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경제경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회 단체의 보조를 받아 자기들의 몫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영역에 뛰어들어 새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 단체로부터 방법들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같은 목적 성취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같은 목적 성취를 구현코자 이슬람은 투자자본은 물론이고 그 국가가 축적하고 있는 총자산에서 일년에 2.5%의 비율로 자카트를 부과해야 하고 5%에서 10%는 모든 우스흐르의 농업 생산물에서 징수하며 20%는 광물과 그 상품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축 자카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최저숫자를 어느 정도 상회하는 소떼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비율에 의거하여 연간 자카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징수되는 자카트 전부는 가난한 사람, 고아와 빈곤한 사람을 돕는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 이것은 사회 보장의 방법을 제시하여 제시된 방법을 통해서 이슬람 사회의 생활필수품



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생활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굶주림을 염려하여 자기에게 불이익을 저지르는 고용주의 횡포를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적절한 의학 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여 표준 건강 상태 이하로 떨어지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개인과 공동사회의 위치에 관하여 이슬람은 그들 사이의 균형이나 구성원의 개인적 자유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공동사회 전체 이익 때문에 희생되지 않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것으로 자유의 성장과 자유의 자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슬람은 개인의 정체성을 공동사회의 정체성에 통합시켜 개인의 개성과 재능의 적절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개인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경제조직 또는 정치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통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발생하는 결과로는 고동사회에 의해 빚어지는 개인의 허무주의로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성원의 개별성이 존재하여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어려워진다.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가 존재하여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어려워진다.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가 개인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개인에게는 필수요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란 문명화된 도덕적 존재가 성립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우리가 인간의 개별성을 완전히 소멸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 생활은 개인이 자유로이 생계비를 벌며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보존하고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적성을 계발시킬 충분한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의약품이나 위로금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그것이 비로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한다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단순한 육체적 행복이나 보장 되지 않는 성공에 의해 대리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슬람이 위와 같은 체제를 반대하듯이 개인에게 지나친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부여하고 공동 사회의 행복을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고 횡령해서라도 개인적 이익을 확보하고 개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전권을 위임하는 사회체제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두가지 극단 사이에서 이슬람은 중용의 원칙을 수용하여 개인으로 하여 그 공동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서 일정한 규제조항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그 밖의 것은 개인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을 취했다. 개인은 영리목적

의 기업경영과 경쟁을 하되 개인과 사회의 선을 보장하는 범주에서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세부적 의무 조항과 규제조항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조항들의 대략적인 요약된 내용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의무와 규제

우선 생계수단에 대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슬람처럼 재물을 축적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려는 법률제도나 사회제도가 세상에는 없다. 이슬람은 다른 개인이나 전체 사회의 권리를 도덕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침해하는 생계수단은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슬람 법률은 주류와 그 밖의 주류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행위를 합법적인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간음과 춤을 직업으로 하는 것과 간음, 도박, 경마, 복권 및 투기성이 비현실적이며 사기성의 논쟁의 소지가 되는 종류의 거래 등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한편 다른 쪽은 그렇지 못한 사업거래와 생활 필수품의 판매를 독점하여 가격을 조작하거나 그 밖의 공동사회의 이익을 착취하는 유사한 다른 여러가지 거래 역시 합법적인 범주에서 벗어난다. 이슬람의 경제법률의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들 수 있고 또 만들고 있는 수 많은 불법적 행위들의 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슬람은 이와 같은 모든 부당한 수단 방법을 금지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사회에 어느 정도 실질적이고 유용한 기여를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하고 타당한 보상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

이슬람은 개인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 갖는 소유권리-비록 그 소유권리가 그에게 부적합할지라도-를 인정한다. 개인은 자기의 재산을 쓰되 오직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쓸 수 있다. 이슬람은 지출항목에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그가 올바른 생활을 운영하여 사치 생활에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개인은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나타내는 명시된 데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훨씬 유복한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몇 가지 정해진 불법적이고 사치성의 지출 형태는 분명하고 명료하게 금지시키는 한편 몇 가지 다른 것들은 이슬람 국가의 자유 재량에 의

해 뚜렷한 금지조항없이 규제하고 있다.

개인이 축적한 부는 그가 생활에서 필요한 만큼 합법적이고 원리타당하게 쓰여지고 나서 그 나머지는 더 많은 부를 재생산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재생산 활동에는 몇 가지 규제조항이 따른다.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경우 그는 물론 법률로 정한 최소 기준치를 상회하는 축적량을 갖고서 일년에 2.5%비율로 자카트를 납세해야 한다. 개인이 만약 그것을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 사업내용은 반드시 합법적이라고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합법적인 사업을 스스로 떠맡거나 또는 자기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금을 나눈다는 원칙 아래 대허하는 것도 용납된다. 이와 같은 제한 조건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이슬람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볼때 이슬람은 개인에게 두 가지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첫째, 개인은 상품을 구입할 때 자카트와 농업 생산물분의 우스흐르(1/10)를 납세해야 한다. 둘째 개인은 상업, 농업에 있어서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및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 국가와 공동사회에 정당하고 정직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특히 고용인에게 불의를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이슬람 국가는 제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말한 제한 범위 내에서 축적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슬람은 그 재산이 같은 지점, 같은 장소에 오랜 기간 집중되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체 내의 상속법에 의하여 이슬람은 축적된 부를 세대를 거쳐 여러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킨다. 이러한 점은 이슬람의 법률정신이 현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상속법은 일반 개인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재산은 대대 손손 수익자의 권한에 묻어두는 경향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슬람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이 그의 생애 동안 축적한 부를 그가 죽자마자 가까운 친척 친지들 사이에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가까운 친척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먼 친족이 법률이 명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들 각자에게 부를 분배한다. 먼 친척도 나서지 않을 경우 무슬림 사회 전체가 그 재산의 상속자가 된다. 이러한 법률은 자본가나 지주로 구성된 대가족이 형성되어 유지되는 것을 반대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규제조항과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것이라도 그러한 개인의 부축적을 지지할 경우, 이런 지지형태는 사유재

산과 기업자유를 보장하며 집단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사회가 번영, 발전할 수 있는 체제에 마지막 증지부를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6장

### 이슬람의 영적체제<sup>34</sup>

이슬람의 영적체제는 무엇이며 생활체제 전체와 이것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영성개념과 다른 종교와 이념이 주장하는 영성개념과의 차이점을 고찰해야 한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았을 경우 번번히 발생하는 오류는 이슬람의 영적 체제를 이해할 때 “영적”이란 어휘가 연상시키는 여러가지 어렵פות한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어 이러한 막연한 상태에서는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주장하는 통합되고 일원화된 삶의 개념이 핵심을 이루는 이슬람의 영적 체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육과 영의 갈등

철학과 종교에서 사상의 추세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육체와 영혼은 상호 대립, 갈등관계 있어서 서로 생활에서 병행할 수 없으며 한쪽이 발전하려면 다른 쪽을 희생해서만이 가능하다. 영혼에 있어서 육체와 물질의 한계는 일종의 감옥이며 현세 생활의 세속적 활동은 족쇄가 되어 영혼을 구속하고 속박하여 영성 성장을 정지시킨다. 이상이 이에 잘 알려진 영적세계와 세속세계로 나누는 우주 분류 개념이었다. 세속의 길을 택한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영성 계율을 다룰 수 없다고 확신하여 삶에 있어서 감각적 견해에 빠져들고 마침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다. 따라서 모든 세속활동, 즉 사회, 정치, 문화를 포함하는 모든 세속활동은 영성의 빛을 빼앗겼고 세계는 불의

---

<sup>34</sup> 이 장은 1948년 3월16일 파키스탄 라디오로 방송된 저자의 방송내용을 새로이 정리하여 번역한 것이다.

와 독재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다른 한편 뛰어난 영적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들은 길을 열고 쇠신하여 영혼을 발전시키고 오양시키는 방법을 창출하는 그들은 스스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이 이 세계에서 육의 생활과 양립하는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육적인 고행이 영적체계를 발전시키고 완성하는 필요불가결적 요소였다. 욕망을 소멸시켜 육체를 무감각화 내지 무용짐물화했다. 그들은 숲이나 산 그리고 기타 다른 한적한 장소를 영성훈련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라고 여겨 그와 같은 은신처에서 아주 자그마한 문명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영성 훈련을 하고 무아지경의 명상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 세계로 부터 자신을 은둔시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와 문명과의 모든 접촉도 끊어버리는 방법 이외의 다른 어떠한 편한 방법을 염두해 두지 않았다.

육체와 영혼의 이런 갈등은 인간 완성을 위한 두 가지 다른 이상형을 전개시키기에 이르렀다. 그 중 하나는 물질적 완성으로서 이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어 그 속에서 인간은 동물로서만 존재하면 된다는 이념으로 이 영역에서는 도달해야 할 기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았다. 결과는 인간은 동물로서는 탁월하나 내부에 지니고 있는 인간 본성은 그 정도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인간은 새처럼 나는 것을 배웠고 악어처럼 수영하는 것을 배웠고 말처럼 달리는 것을 늑대처럼 타도하고 멸망시키는 것조차 배웠지만 그들이 이미 배운 고귀한 인간답게 사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다른 이상적 방법은 영적 생활을 완성시켜 인간 감각이 정복되어 지배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초감각력을 일깨워서 감각세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실현된다면 인간은 마치 강력한 무선 전신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망원경을 통해서 보듯이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 있고 게다가 능력을 배양하면 그림을 이용해서 인간의 손으로 가볍게 만지거나 시력을 집중시켜 불치환자를 완치시킬 수 있었다. 이같은 초감각 영역은 인류발전의 또 다른 통로이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이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슬람의 관점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다른 모든 현존하는 종교체제와 철학체제의 관점과 획기적으로 다르다. 이슬람

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대리 지배자”(칼리파)로 임명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설정하여 그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또한 인간에게 최고, 최적의 신체골격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한 유일한 목적은 영혼이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완수함에 있어서 육체를 유용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영혼의 일터이며 공장으로서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할 어떠한 여지가 있을 경우 육체라는 일터가 제공하는 힘 즉 도구 및 기구를 유용할 때만이 비로소 영혼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세계는 인간의 영혼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속시키는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인간을 내려보낸 곳이다. 이 우주에는 삼라만상이 자리하여 인간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많은 인간들이 다름아니 하나님이 부여한 대리 통치권이 의무수행을 위해서 (이)세상에 창조되었다. 인간이 갖는 고유한 욕망은 문명을 탄생시켰고 문화는 각종 사회제도를 탄생시켰다. 이 세상에서 가능한 영적 발전의 모습은 현실에서 외면하여 사람이 없는 어느 구석으로 은둔하는 인간의 모습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 영적 발전이 뛰어야 할 모습은 현실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일이다. 이것은 인간 중심 속에 살아 있는 인간 본질이며 사실상 인간 삶의 모든 측면, 모든 영역은 시험에 있어서 질문지와도 같은 것이고 가정과 가족, 이웃, 사회, 시장, 사무실, 공장, 학교, 법원, 경찰서, 국회, 평화회담 그리고 전쟁터 등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한 “질문지들”로서 인간은 각 질문지에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인간이 아무런 질문지도 가지 않고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아 여백으로 남겨 둔다면 그는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하고 발전하려면 인간은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자기의 모든 주의를 이 시험에 기울여 가능한 한 자기가 받은 모든 각 질문지에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슬람은 금욕적인 인생관을 배격하고 인간이 영적으로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련의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삶에서 겪는 아픔과 괴로움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슬람에 의하면 영혼이 성장하고 고양되어 상승할 수 있는 참된 장소는 삶이란 행위 자체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 결코 영혼의 겨울잠을 유도하는 은둔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 도덕 발전의 표준

지금까지는 이슬람의 기본적 접근 방법을 설명했으니 이슬람이 제시하는 영혼의 발전이나 부패의 판단기준을 논의하여 보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언급한 칼리파 개념에 기초한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칼리파(대리통치자)로서의 인간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이 자신이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의 의무이며 따라서 세상의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통치를 받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자신이 타고난 재능과 자질을 개발해야 한다. 다른 동료 인간을 다룸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자기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세상 사물을 통제하는 일에 집중시키되 하나님이 바라는 형식에 의거해야 한다. 인간이 책임감, 복종심, 겸허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할 수록 그는 하나님에게 더욱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영적 성숙이 곧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게으르고 반항적이고 불복종하며 나태하고 계율을 위반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영적 타락과 인간적인 부패를 뜻한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 심성을 지닌 사람과 세속적 심성을 지닌 사람의 활동영역이 같다는 것을 명백해 해준다. 두 종류의 사람 모두 같은 활동영역에서 일할 것이며 오히려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이 세속적 심성을 지닌 사람보다 훨씬 열의를 가지고 일할 것이다. 종교적 심성을 지닌 사람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훨씬 열의를 가지고 일할 것이다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만큼 능동적인 것이며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가정 생활, 사회 기능 생활에서 제한된 가사 활동에서 시장터 또는 국제회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종교적 심성을 지닌 사

랍은 어떤 일을 하건 그는 하나님께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계율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세속적 심성을 지닌 사람은 무책임하며 하나님에 대해 무심하고 오직 자기의 개인적인 행동원리에 의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종교적 심성을 지닌 사람의 물질적 생활 전부를 철두철리한 영적 모험으로 일관하게 하고 세속적 심성을 지닌 사람의 생활 전부를 번득이는 영성이 전혀 없는 무미 건조한 것으로 만든다.

### 영성에 이르는 길

이제는 인간이 세상에서 세속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슬람이 제시해 놓은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 방법의 첫번째 단계는 이만(신앙)이다. 이는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는 최고의 개념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신격이시고 인간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율만이 인간 생활을 운영하는 법률이다. 이런 사실을 인간은 명심하여 확신해야 하며 단지 지식으로서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확신이 강렬할수록 깊을수록 믿음은 심오해지며 심오해진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 그 인내와 성실로 영적 성장의 길을 걷게 하고 부딪치는 인생의 흥망성쇠를 과감하게 흔들림없이 맞서도록 도와줄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이타아(복종)으로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독립성을 완전히 내던지고 자신의 신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서약하고 나서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에게 정치기적인 신앙태도를 보여야 한다. 꾸란의 술어사용에 의하면 이같은 순종과 복종을 이슬람(순종)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슬람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과 지배자로서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그 생애를 통해 주인에게 순종하는 생활 양식을 말한다.

세번째 단계는 따꾸아(경건)으로서 인간은 그의 일상 생활 양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정한 의식의 형태로 드러내야 한다. 또한 따꾸아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모든 것을 삼가하고 하나님이 달가와하시지 않은 것조차 기꺼히 받아들여 하나님



이 계시하신 선율을 지키고 생활에서 합법적인 것, 불법적인 것,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선별하는 규제 조항을 따라야 한다.

마지막이면서 최고의 단계에 이흐산(축복)으로서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의 의지와 동일시하여 적어도 자기가 관계하는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의지와 공감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신앙생활에서 인간에게 부여되는 믿음의 열매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위에 퍼지는 것을 꺼려하시는 갖가지 악을 이 땅에서 깨끗이 쓸어 버리도록 애써야 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위에서 꽃피우시기를 바라시는 덕을 스스로 쌓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덕을 이 땅 곳곳에 널리 전하여 확립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한다. 이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영적 성장의 최고점에 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영적 성장의 길은 개인 뿐 아니라 공동 사회와 국가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사회 역시 영적 성장의 각 단계를 거치고 나면 궁극적인 최고 단계인 이흐산에 이르고 한 국가 역시 이와 같은 제단계를 섭렵하면 결과적으로 무민(신앙깊은자), 무슬림(순종하는자), 무따끼(경건한자), 그리고 무흐썬(축복받은자)가 된다. 사실상 이슬람이 주창하는 이 같은 이념은 공동사회 전체가 영적 성장의 길에 참여할 때 비로소 완전무결하게 실현되는 것이며 무따끼와 무흐썬의 국가가 이 세계에 구현되는 것이다. 이는 악은 정복되고 덕은 사회를 지배하는 문명발달의 극치이다.

개인과 사회가 이같은 목적지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슬람이 제시하는 영성 훈련의 메카니즘을 잠시 살펴보자.

이슬람의 영적 체제는 5가지 기본원리에서 출발한다. 첫째가 예배(쌀라)인데 예배는 하루에 5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인간은 그 분을 회상하고 그 분에 대한 외경을 나타내며 그 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분의 계율을 되풀이하여 상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심을 키워간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지 않고 반드시 몇 사람이 무리를 지어 함께 드림으로써 공동집단 전체와 공동사회 전체가 영성훈련 의식에 참여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것은 이슬람이 각 개인의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단식으로써 연례행사로 한달 동안 개인적으로 또는 무슬림 공동사회 전체를 경건과 자기절제의 훈련을 시킴으

로써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공동사회 전체가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하면서 부딪치는 여러가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신 자세를 키워준다.

세 번째는 자카트로서 무슬림 사이의 자애심과 협동심 및 재정적인 또는 물질적인 희생정신을 가르친다. 자카트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정신은 세금 개념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카트를 세금개념으로만 받아들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카트의 참된 의미는 정화이며 송고다. 이 어휘를 사용하면서 이슬람은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그의 형제 (이웃)에게 베푸는 재정적 도움은 베푸는 사람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고양시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취시키려 한다.

네 번째의 순례(하즈)는 사해동포주의적 형제애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경배의식으로서 무슬림들에게 주지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이 목적은 세기를 통하여 진리의 부름에 응답하는 신앙운동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인간의 역사는 영원토록 이 부름에 응답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sup>35</sup>성전(지하드)은 개인이 영적 성숙을 거듭하여 최고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여 숭상하고 이슬람을 휘방하는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말과 글과 무를 사용해서 계승, 발전시킨다. 이를테면 알라(하나님)라는 대의 명분에 헌신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완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삶을 의미한다. 이슬람이 내세우는 이와 같은 영성형태는 삶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가꾸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삶을 수용하고 이슬람이 표방하는 미덕과 경건의 터전 위에 삶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삶의 부정이나 자기 부정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구성하는 가장 으뜸의 주요 특색이다.

---

<sup>35</sup> 이 절은 편자가 추가한 것으로 저자의 “이슬람의 이해를 위하여”에 근거한다.(편주)